

■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캠페인 '삶을 나누시다 생명을 나누시다' **화계사·내원정사법회**

외국인스님 14명도 '생명나눔' 동참

장기기증 56명 화장서약 608명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역사 주지)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법회가 지난 5일과 14일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연)와 서울 화계(주지 성광)에서 각각 개최돼 외국인스님을 포함해 56명이 장기기증을 하고 608명이 화장유언을 남겼다.

초하루 커피와 함께 열린 화계 법회에서 성광스님은 "장기기증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며 "장례문화 선도를 위해서 불자들이 화장유언서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법토했다. 특히 매일 1회 삼천배 참회법회를 실시해오면서 생명나눔캠페인 참여는 화계사에서는 지금까지 서명하지 않은 신도들이 이날 집중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화계사에서도 매월 삼천배 법회시마다 장기기증 서약과 화장유언 서약을 장기로 하는 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성광스님은 화계



◇내원정사 캠페인은 모두 483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화계사 캠페인은 삼천배 참회법회의 어우러져 진행됐다.

사람 대표로 생명나눔실천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성광스님 등 16명이 장기기증을, 165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했으며, 화계사에서 공부중인 외국인 스님 14명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 서약을 남겼다. '선량부모 조상 및 전몰 장병 호국영령 천도 49일 지경기도 대법회'와 함께 열린 내원정사 캠페인에서 주지 정연스님은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은 더할 나

위 없는 보살행이며, 불자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이웃에게도 그 뜻을 알려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법장스님이 참석해 서약을 독려한 내원정사 캠페인에서는 40명이 장기기증을, 443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모두 483명의 불자가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영우 · 천미희 기자 (mwhan@buddhapia.com)

"나와 조상 함께 빛 찾는 일"

내원정사 주지 정연스님



조상들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울 바로 천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본래 밝아 있는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밝음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밝음을 체득한다면 바로 조상과 호국장병들의 마음을 밝혀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천도하는 귀한 자리에 모였지만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내 마음을 밝히고 나를 천도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생명을 나누자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내가 먼저 밝아지고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배움은 이렇게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배우는 보시는 바로 내가 내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알고 오�히려 기쁘게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보시는 최상의 보배"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



이 세상에서 최상의 보배는 안으로 함다운 믿음이고, 바깥으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귀일심(歸一心)하고 요익중생(樂益衆生)하는 삶이야말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진정한 본래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못 본척하고 그냥 지나치면 온종일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주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몸을 떼어내 남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시입니다. 이름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생명이기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곳에서 허망한 욕심에 대한 집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버려야 상대를 바로 볼 수 있고, 집착하면 세상 아무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동체지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요, 그것은 곧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계사에서 수행중인 외국인 스님들도 캠페인에 동참하고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이모저모

"보시권유 처음 해봤다"

○...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 신도님들에게 보시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은 한 번 해야겠다"며 서명대에서 신도들의 동참을 독려하기도.

"뜻깊은 일" 외국인스님 동참

○... 화계사 캠페인에서 단연 인기를 끈 사람들은 이곳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30여명의 외

국인 스님들. 꼭 짜여진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날 생명나눔 캠페인에 많은 스님들이 동참했다. 한국에 온지 5년째라는 헝가리 출신 청안스님은 "몸은 어디에서 온 것도, 또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니 화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경도 살리고 넘쳐나는 묘지도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주위의 외국인 스님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청안스님은 화장서약은 물론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 등 장기기증 대부분 항목에 서명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지 4년째

라는 대원스님도 청안스님과 함께 장기기증에 서약했다. 캠페인에 대한 소감을 묻자 대원스님은 "이렇게 뜻깊은 일에 불교인들이 앞장서니 매우 기쁘다"며 "훌륭하다"는 말만 몇차례 반복하기도.

공양주보살도 화장 서약

○... 내원정사 캠페인에서 가장 먼저 화장유언에 서약한 신도는 이곳의 공양주보살. 서명대가 차려지자마자 이것저것을 몰으며 관심을 보였던 공양주보살은 함께 절 일을 보는 보살들과 처사들을 데리고 와서 서명하라고 재촉하기도.

신제품 **결망 CHUN HWA** **특허청**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결망을 매세요.

중은점 6가지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藏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大 가로 44cm 세로 48cm
 小 가로 40cm 세로 38cm
가격: 大 ₩33,000 小 ₩30,000
색상: 회색

은행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울·경기
농협	061-17-001230	(주)천화무역	5개이상 주문하시면
우체국	013805-0068619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 전화주문시엔 곧 보내 드립니다. ※

※ 본 결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학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공급처: (주)천화무역 **전화: (02)449-8844**
(02)449-9100

· 불교 지도자들의 필독서 ·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과 불교

고목스님 지음

이 한편의 책으로 3천년 석양철학은 불교에 화합하였다. 미래철학으로 주목받는 유기체 철학을 불교이론과 사상으로서 명쾌하게 해석한 조우의 저술

「화이트헤드 철학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서 동서 철학 사상의 융합을 위한 효과적인 원리를 제공한다.」

시간과 공간사 **도서출판 삼양**
Tel. 3272-4546 **TEL 762-5166-7**

● 고목스님의 책들

- 화두 이야기 100대 선사의 유명공안 200칙 해설
- 조주록 탐구 불세출의 경승 조주선사의 선사상 탐구
- 반야심경 생활 속의 반야바라밀 해설
- 금강경 안목을 얻게하는 최상승 법문
- 명상고 연리와수련법(근간) 명상의 원리를 알고 수련하는 실용명상서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인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이다.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8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書數 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오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正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요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구임.

총판대리점 법우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